

설레는 등교...“코로나로 학교 쉬는 날 없었으면”

광주 초·중·고 모든 학교...전남 86% 새학기 시작 마스크 쓴 학생·방역 분주 교사도 ‘긴장 반 기대 반’ 교육청 “방역 철저히 등교수업일 충분히 확보” 권고

설렘과 우려 속에 2일 광주·전남 각급 학교가 정상 개학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개학을 연기해야 했던 광주·전남교육청은 촘촘하고 다양한 대책과 함께 새학년·새학기 학생들을 맞이했다.

마스크를 쓴 채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등교한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의 모습이 역력했다. 교사들은 코로나19에 대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부터 일러주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본격적인 학기를 시작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 지역 유치원 285개원, 초등학교 154개교 중 153개교(17개교 공사중), 중학교 92개교, 고등학교 68개교, 특수학교 5개교 모두 정상 개학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하며 원격수업 병행 때도 우선적으로 등교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초·중·고 300명 이하 학교,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인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인원을 자율 결정한다.

전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수업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429개교 중 364개교(84.8%), 중학교는 249개교 중 211개교(84.7%), 고등학교는 144개교 중 123개교(85.4%)가 이날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전남의 경우 현재 1.5단계로 특수학교·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가 매일 등교한다.

도 교육청은 지난 달 초 ‘2021년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안내를 통해 학교 밀집도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등교수업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광주 각학초 입학생을 둔 김민숙(38)씨는 “입학한달 전부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을 가르쳤다”면서 “그동안 집에 있느라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되지 않아 걱정이다. 선생님들이 잘 관리해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올해 고3이 된 김성철 군은 “제발 학교 안에서 친구들 선생님이든 모두 건강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쉬는 날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 올해는 큰 문제없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건국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용 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양 중진초등학교

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등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 전남교육 백서’ 펴내 도교육청, 대응 과정 정리

전남도교육청이 ‘2020 코로나19 전남교육 백서’를 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전남교육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지난 1년 전남교육청과 교육가족들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이 정리됐다.

‘학습·돌봄·방역’이라는 교육 안전망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학교 현장을 지원한 내용을 담아 추후 유사사례 발생 때 대응 매뉴얼로 삼도록 했다.

백서는 총 510쪽 분량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과 국내외 확산 동향, 국제적인 대응 모습과 국내 방역활동을 다룬 1장과 도 교육청의 대응 시스템 구축, 대응 중간일지, 성과별 대응일지, 분청 방역활동, 예산확보와 지원, 위기소통을 위한 홍보와 안내, 지역 사회 연대와 협력 사례를 정리한 2장 등 본문 5개 장으로 구성됐다.

부록은 코로나19 대응의 변곡점마다 발표된 교육감 서한문과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생활 소회가 담긴 소감문, 유·초·중·고·특수 학교의 학교급별 학교 대응 사례로 채워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

말바우시장 주차난 던다

광주 북구, 268면 규모 3주차장 본격 운영

광주시 북구 대표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에 268면 규모의 새로운 주차공간이 마련됐다.

2일 북구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말바우시장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만 7000여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주차공간이 협소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조성된 제3주차장(1만 541㎡의 면적)에는 주차 공간 268면과 전기차 충전시설(6대), 공중화장실, 공연무대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주차공간을 확장형으로 조성,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BF) 예비 인증을 받아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게 북구의 설명이다.

북구는 기존 제1주차장 76면과 제2주차장 48면을 포함 총 39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주변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말바우시장은 2021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돼 2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케이드 설치사업(제4구간 194m)을 추진, 시장 환경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

“대나무로 엉덩이 두 대” 보습학원장 아동학대 피소

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보습학원인 E 학원 원장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학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B군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등교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대가량 때렸다.

A원장은 B군 외 학원생들도 체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부모는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원장의 체벌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원장의 체벌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학원법에 따르면 단순 체벌의 경우 벌점 30점(경고)을 부과하게 돼 있고, 최종 법원판결 결과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폐원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원장은 자신의 체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등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조선대 기계공학과 ‘기업이 뽑은 최우수 학과’ 선정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가 기업들이 직접 우수 학과를 선정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학과로 선정됐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기업들이 직접 우수 학과를 선정하는 평가다. 건축(시공) 분야와 기계(자동차) 분야 관련 학과가 대상이다.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방향을 제시해 산업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8년

부터 현재까지 4주기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조선대 기계공학과는 자동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공교육 과정의 다양성,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는 다변화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라 ▲고체 및 재료공학 ▲열공학 ▲유체공학 ▲생산 및 설계공학 ▲동역학 및 제어공학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에세이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희동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5쇄 판매중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최신간 양장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인기리 판매중